함평 나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광주 - 동광평IC 구간 광역 동행로 완공
우천시 9홀 이후 홀별요금정산제 실시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허정무호 "19년 무승 징크스 깨겠다"

내일 새벽 1시 35분 사우디와 격돌

7회 연속 본선 진출위한 필승 다짐

■ 남아공월드컵 亞 최종 예선 3차전

지긋지긋한 사우디아라비아전 '무승 징크스'를 깨고 7회 연속 월드컵축구 본선 진출 희망을 살린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20일 새벽 1시35분(한국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킹파드 스타디움에서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3차전을 갖는다. 허정무호로서는 월드컵 본선 직행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일전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3위인 한국은 한 계단 높은 사우디아라비아(52위)와 최종예선 B조에서 1승1무로 동률이지만 골 득실(한국 +3, 사우디 +1)에서 앞선 불안을 선두를 지키고 있다.

원정에서 승점 3점을 보탠다면 조 2위까지 주어지는 월드컵 본선행 티켓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우디에 덜미를 잡힌다면 2위 자리도 장담하기 어렵다.

그러나 19년 동안 이겨본 적이 없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맞대결은 부담스럽다. 지난 1989년 이탈리아 월드컵 예선 2-0 승리 이후 19년 동안 6경기 연속 무승(3무3패) 행진을 벌여 상대전적 3승6무5패로 뒤져 있다.

한편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 NFC(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국내파 20명을 처음 소집해 담금질을 해왔던 허정무호는 18일 박주영(AS모나코)과 오범석(사마라FC)이 막차로 합류하면서 골격을 완전히 갖췄다. 애초 엔트리에 들었던 김동진(제니트)만 허벅지 부상 여파로 낙마했다.

허정무호는 전날 밤 결전의 땅인 리야드에 도착해 숙소인 메리어트호텔에 여장을 푼 뒤 여독이 완전히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첫날 훈련을 하며 이틀 앞으로 다가온 사우디아라비아전 필승을 위한 담금질을 시작했다.

늦게 도착한 박주영, 오범석이 불참한 가운데 현지 시각으로 17일 오후 8시부터 리야드 시내 말라즈 스타디움에서 진행된 훈련에서는 전날 리야드에 도착한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빠졌을 뿐 21명이 11대 11 미니게임으로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주전팀에는 예상대로 이근호(대구)-정성훈(부산)이 사우디 골문을 열 투톱으로 나섰고 4-4-2 포메이션의 포백 수비라인은 김치우(서울)-강민수(전북)-조용형(제주)-이영표(도르트문트)가 차례로 늘어섰다.

골키퍼는 지난해 아시아게임 음주파문 아픔을 딛고 1년4개월여 만에 대표팀에 복귀한 '거미손' 이운재(수원)가 봤고 중앙 미드필더에는 김정우(성남)와 기성용(서울)이 호흡을 맞췄다.

좌우 날개는 박지성이 정상 훈련에 빠지면서 왼쪽은 허정무호에 처음 발탁된 하대성(대구), 오른쪽에는 젊은 피 이청용(서울)이 포진했다.

미니게임 후반에는 하대성 자리에 부상에서 회복한 '왼발 스페셜리스트' 염기훈(울산)을 기용했고 오른쪽 무릎이 좋지 않은 김정우 대신 조원희(수원)를 투입해 실험했다.

그러나 사우디전에는 '캡틴' 박지성이 왼쪽 윙포워드를 맡을 것으로 보이고 박주영은 분위기 흐름을 바꿀 '특급 조커'로 활약할 전망이다.

홈팬들의 극성 응원을 등에 업고 승점 3점을 따겠다는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과 같은 4-4-2 전형을 구사하는 데, 부상으로 빠진 간판 공격수 야세르 알 카타니 공백을 메우는 신예 스트라이커 나예프 하자지가 '경계대상 1호'다.

하자지는 크지 않은 키에도 빼어난 골결정력을 앞세워 지난 8일 태국, 12일 바레인과 평가전에서 3골 1도움의 불꽃 활약을 펼쳤다. /연합뉴스

이근호

이근호 "득점포 조준 완료"

사우디전 앞두고 당찬 결의

정성훈과 '찰떡 궁합'…투톱

"항상 골을 넣을 준비가 돼 있다. 20일 사우디전에 초점을 맞춰 최상의 컨디션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 박주영과 경쟁은 오히려 자극제가 되면서 우리 팀 전체에 전력 상승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허정무호의 간판 공격수로 자리를 잡은 이근호(23·대구)는 20일 사우디아라비아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3차전에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득점포를 가동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 6월29일 이라크와 친선경기를 통해 A매치에 데뷔한 이근호는 첫 경기에서 데뷔골을 신고했을 정도로 뛰어난 골감각을 자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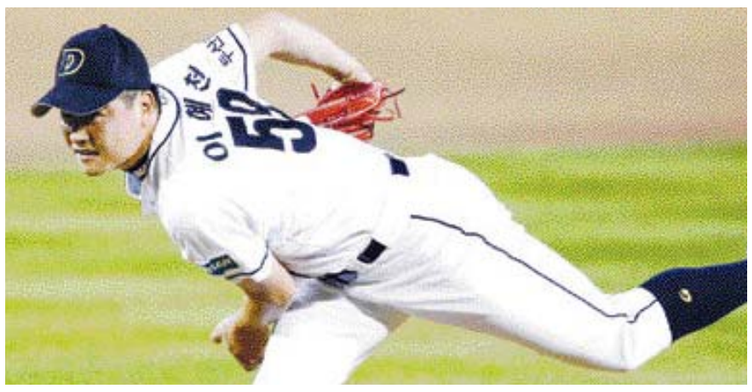
올 시즌 K-리그에서 정규리그와 컵대회를 합쳐 13골을 사냥해 외국인선수를 제외한 국내파 중 최다골을 기록하며 토종 최고 공격수로 인정을 받았다.

그의 활약이 돋보인 건 지난달 11일 우즈베키스탄과 평가전 3-0 승리에 이어 같은 달 15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월드컵 최종예선 2차전 4-1 완승 때였다. 우즈베키스탄전 선발 자리를 신영록(수원)에게 넘겨줬다 하프타임에 교체 투입된 이근호는 후반에만 두 골을 몰아쳐 승리에 일등공신이 됐고 UAE전에서도 정성훈(부산)과 투톱으로 선발 출격해 A매치 두 경기 연속 두 골을 사냥하는 해결사 본능을 보여줬다. 이제 그가 노리는 상대는 한국이 19년 넘게 '무승 징크스' 시달렸던 사우디아라비아다.

장신 스트라이커 정성훈과 투톱으로 찰떡궁합을 보여준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최종예선 3차전 선발 출격이 유력하다. 잠시 주춤했던 득점포를 시원하게 가동할 때가 된 것이다.

이근호는 18일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 처음 실시한 훈련에서 11대 11 미니게임 때 정성훈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받아 감각적인 논스톱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이날 대표팀 미니게임에서 나온 유일한 골이다.

그는 이날 대표팀에 합류한 박주영(AS모나코)과 최전방 공격수 한 자리를 다퉈야 하지만 자신이 우위에 있음을 골 시위로 보여준 셈이다. A매치 12경기에서 5골을 기록 중인 그는 "사우디에 19년간 이기지 못한 것은 맞지만 고작 여섯 경기 밖에 안된다. 징크스는 깨지려고 있는 것이기에 내가 그걸 깨는 데 맨앞에 서겠다"는 야심찬 출사표를 던졌다. /연합뉴스



이혜천 日 요미우리서 강력 러브콜

연봉 1억엔·3년 계약 조건

야쿠르트서도 계속 타진 중

일본프로야구 진출을 타진해 온 좌완투수 이혜천(29·전 두산·사진)이 19일 일본 현지로 날아가 계약을 마무리 짓는다.

야쿠르트 스왈로스와 요미우리 자이언츠 중 한 팀과 계약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최근 이승엽(32)의 소속팀 요미우리가 거액을 제시, 이혜천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임창용(32·야쿠르트)의 에이전트로 이혜천의 일본 진출을 타진중인 박유현 씨는 18일 "임창용(32)이 야쿠르트에서 뛰고 있어 내가 이혜천도 그쪽과 계약을 추진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최근 요미우리가 좋은 조건을 제시해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이혜천에게 연봉 1억엔(추정치), 계약기간은 최대 3년까지 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연봉 30만달러 등 옵션을 포함해 최대 500만달러에 3년간 계약한 임창용보다 좋은 조건으로 전해졌다.

좌투수로는 시속 150㎞ 강속구를 뿌리고 예리한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던지는 이혜천은 흔치 않은 좌완 강속구 투수라는 점에서 일본에서도 인기가 높다.

올해 포스트시즌에서 보여준 오른손 타자 몸쪽 낮게 파고드는 빠른 볼을 꾸준히 구사한다면 일본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연합뉴스

유승안 前 한화감독

경찰야구단 사령탑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를 이끌었던 유승안〈사진〉 전 감독이 경찰야구단 제2대 사령탑으로 공식 취임했다.

유 감독은 18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청사에서 김석기 청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2004년 프로야구를 한바탕 휩쓴 병역비리 사건 이후 선수들에게 야구를 계속할 기회를 주고자 2005년 12월 창단한 경찰 야구단은 초대 김용철 감독에 이어 두 번째 감독을 맞이했다.

공격형 포수출신인 유 감독은 MBC 청룡(1982-83년)과 해태 타이거즈(1984-85년), 빙그레 이글스(1986-91년)에서 10년간 선수로 뛰었고 2003년부터 2년간 한화 감독을 역임했다.

이배영·당예서 '페어 플레이상'

〈역 도〉 〈탁 구〉

전남도체육회 '특별상'

한국페어플레이위원회 선정

베이징올림픽 남자 역도에서 감동을 안긴 조선대 출신 이배영(29·경북개발공사·왼쪽)과 귀화 탁구선수 당예서(27·대한항공·오른쪽)가 제2회 한국페어플레이상 남녀 개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페어플레이위원회(KFPC·위원장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는 18일 이들과 함께 남녀 단체부문에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 여자농구대표팀을, 특별상에는 장애인 역도 선수 박종철(장애인체육회)과 올해 전남일원에서 열린 제89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전남도체육회를 뽑았다.

이들은 20일 오후 5시30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다.

이배영은 베이징올림픽 남자 역도 69kg급에서 다리에 쥐가 났음에도 강한 정신력으로 끝까지 바벨을 놓지 않는 투혼을 펼쳐 감동을 선사했다.

8년 전 대한항공 훈련 파트너로 한국땅을 밟은 중국 출신 당예서는 귀화 1년 만에 태극마크를 달고 베이징올림픽 여자 복식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당시 중국 관중의 '배신자'라는 비난에도 불구, 불굴의 투지로 이를 깨끗이 극복했다.

두산 베어스는 2년 연속 프로야구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깨끗한 플레이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여자농구대표팀은 올림픽에서 전주원(36), 하은주(25·이상 신한은행) 등 주축 멤버가 빠졌음에도 8강에 올라 저력을 과시했다.

20여 년 간 장애인 역도선수로 우직하게 한 길을 걸어오며 스포츠맨 정신을 몸소 실현한 박종철씨와 올해 제89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전남도체육회도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KFPC는 한국올림픽아카데미와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기자연맹이 주축이 돼 2006년 9월 창설됐고 지난해 초대 수상자를 배출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형택 2회전 진출

ATP 챌린저대회 단식

한국 테니스의 간판 이형택(32·삼성증권)이 남자프로테니스(ATP) 챌린저대회 단식 2회전에 올랐다.

세계랭킹 134위 이형택은 18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게이오 챌린저대회 단식 1회전에서 일본의 다케우치 겐토(522위)를 2-0(6-1 6-3)으로 가볍게 따돌리고 16강에 진출해 제고르 판필(353위·폴란드)과 8강 진출을 다투게 됐다. /연합뉴스